

【논문】

## 溫河衛의 세력확대와 조선의 대응\*

박 정 민\*\*

### 차례

- I. 머리말
- II. 온하위의 폐사군 진출
- III. 온하위의 거주 지역 확대
- IV. 조선과 온하위의 충돌
- V. 맺음말

### 국문초록

온하위는 성종 중반기에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이주한 뒤, 성장한 세력이다. 처음에는 작은 부락에서 시작했지만, 조선과 건주여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 뒤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 마침 조선에서 폐사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 기회를 이용한 온하위인은 점차 폐사군 지역으로 거주지를 확장하였다.

조선은 압록강 안쪽의 영토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체탐하거나 군대를 보내 이들을 내쫓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공방전으로 조선과 온하위는 점차 서로에 대한 반감이 쌓여갔다. 명중선조대에 이르면 이들은 폐사군을 벗어나 만포와 강계, 함경도의 삼수, 갑산, 해산 등지를 공격하며 침략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더 이상 이들은 조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다. 이제 조선에서는 온하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주제어: 온하위, 조선, 연산군, 중종, 명종, 폐사군, 건주여진

## I. 머리말

온하위는 성종대 원거주지인 두만강 하류에서 압록강 중류 일대로 이주한 세력이다. 이들이 처음 자리 잡을 때 그 규모는 40여 호에 불과하였고, 그 존재감은 다른 여진 세력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온하위인은 조선과 건주여진이라는 비교적 강한 주변 세력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측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sup>1)</sup> 이를 바탕으로 온하위인은 압록강 중류 일대에 안착할 수 있었다.

온하위의 거주지는 조선의 사군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선은 세종대에 이르러 여연·우예·무창·자성에 사군을 설치하며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획정하였다. 하지만 여진인의 계속된 침입 등으로 방어의 어려움이 대두되어 1459년(세조 5)에 최종적으로 자성을 폐지하며 1700년대 후반에 개발을 본격화할 때까지 폐사군은 300여 년간 방기되었다. 이 틈을 타 거주한 여진 세력이 온하위로, 당시 공한지였던 폐사군 일대로 점차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온하위의 성장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 중기 조선의 대여진 정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폐사군과 온하위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먼저, 瀨野馬熊는 폐사군의 성립과 폐지 과정, 읍치 등을 비정하며 정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sup>2)</sup> 이 연구는 근대 역사학 최초로 폐사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위치에서 오류가 있고, 식민사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위약성을 강조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sup>3)</sup>

\* 이 논문은 2018년 8월 15일에 열린 滿洲學會創立20周年記念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하였음.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1) 박정민, 2017,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성종~연산군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2) 瀨野馬熊, 1923, 「朝鮮廢四郡考」上, 『東洋學報』 13-1; 1923, 「朝鮮廢四郡考」中, 『東洋學報』 13-3; 1924, 「朝鮮廢四郡考」下, 『東洋學報』 13-4.

3) 홍순영, 2018,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의 編史활동과 한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85.

여기에 한 단계 앞선 연구를 한 것은 이인영이다. 그는 숙종대 직접 이 지역에 다녀온 이들이 작성한 「元永甯日記」와 「李汝節手本」 등을 이용하여 각 군치의 위치·강역·진보 등의 지명을 비정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토성, 석성 등과 역사적 기록을 계기적으로 연결하였고, 위치 비정 등에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폐사군의 성립과 혁철 과정에만 집중하고 이후에는 단순히 여진인이 들어와 살았다는 정도로만 서술한 한계도 보인다.<sup>5)</sup>

사군을 폐지한 뒤에 여진인이 거주한 사실은 자칫 조선의 영토가 세종대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했다는 통설에 반박할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점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 비록 조선이 사군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토군을 파견하였고, 여진인이 거주하면 군사를 보내 驅逐하였다.<sup>6)</sup> 여기에 여진인이 사군에 입주한 배경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온하위를 조선의 藩屏 역할로 만들기 위해 허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온하위의 성장에 조선의 사군 폐지 및 대조선 관계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온하위의 폐사군 진출과 거주지역의 확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과 사료를 이용하여 더 자세하게 조선과 온하위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사군 폐지 이후 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온하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하위의 성장 과정에 조선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李仁榮, 1937, 「鮮初廢四郡地理考」上, 『靑丘學叢』 29; 1939, 「鮮初廢四郡地理考」下, 『靑丘學叢』 30; 1941, 「廢四郡問題管見」, 『震檀學報』 13.

5) 이의 조선 후기 인물들의 변계 인식(강석화, 2012, 「成海應의 西北 邊界 意識」, 『진단학보』 115) 혹은 폐사군의 재설치 논의 등이 있다(이규철, 2016, 「藥泉 南九萬의 北邊 上疏와 廢四郡·厚州鎭 설치 논의」, 『한국인물사연구』 26).

6) 河內良弘, 1992, 「中宗·明宗時代の朝鮮と女眞」, 『明代女眞史の研究』; 김순남, 2010, 「조선 중종대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박도식, 2014, 「어촌 십언광의 북방 경험과 국방 개선안」, 『한일관계사연구』 56.

## II. 온하위의 폐사군 진출

온하위는 성종 중반기에 압록강 중상류의 자성 일대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건주여진의 침입 소식을 알리거나 조선인을 쇠환해 오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온하위는 조선과 신뢰를 구축하고, 조공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온하위가 처음 압록강 중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김유리개는 약 40호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한 지 20여 년이 지난 1497년(연산군 3)에 이르면 김유리개가 스스로 약 200호에 이른다고 주장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였다.<sup>7)</sup>

온하위는 종종 초반에도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를 들



〈그림 1〉 『朝鮮全圖一覽表』의  
조아평 일대  
(朝鮮土地調查局測量)五万分一

어, 이들은 1509년(중종 4) 3월에 여진인에게 잡혀갔던 조선의 騎兵 박경을 쇠환해 왔다. 종종은 鎭將에게 잔치를 베풀고 馬匹과 의복을 나누어 주며 그 공을 치하 하도록 하였다.<sup>8)</sup> 이듬해 8월 5일에도 朴撒塔木와 朴阿郎可 등이 만포에 와서 화라운울적합이 온하위·건주위 사람들과 함께 조선을 도둑질 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sup>9)</sup>

온하위는 조선과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종종대에도 계속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온하위의 성장은 인구 증가를 동반하였다. 이들은 초창기에 평안도 자성의 조아평 일대에 거주하였다. 이곳은 〈그림 1〉에도 확인 되듯이 상당히 비좁았다.

때문에 온하위는 점차 주변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즉, 세조대 이

7) 『성종실록』 권154, 14년 5월 10일 신축; 『연산군일기』 권28, 3년 11월 14일 신해.

8) 『중종실록』 권8, 4년 3월 17일 기유.

9) 『중종실록』 권12, 5년 8월 13일 병신.

후 폐지되어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폐사군 일대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여연 등지는 성종조에 가을과 겨울마다 평안도의 군관을 보내 순행하면서 體探하게 하였지만, 말년에 이를 소홀히 하며 이들의 거주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sup>10)</sup> 이후 연산군과 중종 초반에도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 이는 호시탐탐 거주지 확대의 기회를 노리던 온하위 金主成介 등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김주성개 등은 1511년(중종 6)경부터 여연의 건너편 未彥川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1517년에 김주성개 등의 이주 사실을 인지한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찰사는 조정에 보고하였고, 중종은 즉각 조정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계명과 유담년은 무창 등 사읍을 폐기한지 오래되었지만 본래 우리 땅으로, 김주성개가 소요를 일으키면 그害가 삼포왜란과 같을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반면 정광필 등은 오랑캐가 우리 국경에 살며 점차 늘어나는 것은 국가에 이로운 일은 아니지만, 김주성개가 사는 곳은 압록강 건너편이므로 일단 허락하고자 주장하여 승낙을 얻었다.<sup>11)</sup>

비록 압록강 건너편이기는 하지만 조선 조정으로부터 폐사군 일대에 대한 거주를 허락받자 김주성개의 아들들은 무창 지역에 거주하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받고자 하였다. 1517년 12월에 김주성개의 아들 3명과 사위 童尙時 등이 만포에 와서 현재 무창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집이 모두 강가에 있으므로 거주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이들이 옮겨간 표면적인 이유는 ‘건주위에게 침략 받았기 때문’이었다.<sup>12)</sup>

사실 변장들은 김주성개 등의 이주 이전부터 폐사군 일대에 여진인의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장곤이 평안도 절도사로 재직 중이던 1510년에 관례대로 여연, 무창 등의 산속을 순찰하였다. 이때 이들은 幕을 꾸민

10) “閔延等地 在成宗朝 每於秋冬 遣本道軍官 巡行體探 末年不能如此 莫能誰何 故至此”(『중종실록』 권 38, 15년 1월 13일 임인).

11) 『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8일 임자.

12) “我等被建州衛侵掠 移居茂昌越邊 家皆瀕江 未知許居與否 來告”(『중종실록』 권31, 12년 12월 24일 을축).

곳이 있고, 혹은 때 지어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장곤은 즉각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였으나 대답만할 뿐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이장곤은 兵威를 보여 내쫓아 막을 불사르고 그물을 나무에 걸어두었다.<sup>13)</sup>

이장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 같았지만, 조선군이 물러난 후 온하위인은 다시 되돌아와 예전처럼 거주하였다. 이처럼 김주성개 등이 조선에 자신들의 거주 의사를 표명하기 전부터 여진인은 폐사군 내외에 점차 들어와 살고 있었고, 조선의 압박에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 양상이었다.

조선 조정에서 김주성개 등의 거주를 허락한 이후 이들의 이주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1519년 2월에도 함경남도 절도사 이지방은 “金巨應九乃 등 20여 家가 여연 건너편에 와서 寓居한다.”며 만약 이들의 거주를 허가하면 부락이 점점 성하여 나중에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14)</sup> 계속되는 온하위의 폐사군 일대 유입에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일단 중종은 평안도 절도사에게 이들의 거주 현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동년 6월에 평안도 절도사 윤희평은 군관 김인손 등을 여연 등지에 보내 탐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1) “彼人 金阿宋可(介) 등은 본래 富寧에서 살던 자로 여연 성 밑에 옮겨와 살며 성 안에는 채소를 심고 성 밖에는 밭을 개간하여 조를 심었는데 다 무성하였다. 그 집을 자못 튼튼하게 짓고 사방에 木柵을 세우고 또한 동서에 문을 두 개 내어 오래된 부락 같은데 무릇 17호나 되었다. …… 또한, 각 가 호마다 상자를 많이 쌓아놓았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답하길 ‘회령에 사는 사람들 등 300여 명이 장차 여기에 와서 살려고 미리 살림을 실어다 놓은 것으로 조정에서 끝내 금지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유독 이곳만이 아니라, 강 위아래 연안에 와서 사는 피인들이 모두 92호에 장정이 무려 400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 이미 오래되어 매우 국가에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驅逐하려 하지만 사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연·무창의 옛터는 본래 우리 나라의 강토로서 성이 여전한데, 김아송가 등 20여 호는 전에 회령에서 살던 오랑캐로서 제멋대로 이사하여 살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

13) 『중종실록』 권25, 11년 5월 30일 경술.

14) “彼人金巨應仇乃等二十餘家 來寓閭延越邊”(『중종실록』 권35, 14년 2월 25일 기축).

림이 없어 心腹의 病처럼 되었습니다. 300여 호가 또한 이주하려 이미 살림을 실어다놓아 사세가 장차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하고 일찍 도모하지 않는다면, 앞날에는 근심거리가 되어 장치는 제어하기 어려울까 싶습니다. 그들의 대답하는 것을 보건대 말이 매우 불손하여 돌아갈 뜻이 없으니, 강계·함흥·삼수·갑산 지경은 앞으로 오래지 않아 피해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sup>15)</sup>

김인손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김주성개를 비롯하여 함경도 부령에 살던 金阿來可도 20여 호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여연성 안에 채소, 성 밖에는 조를 심었다. 그리고 이들은 집까지 튼튼하게 짓고, 사방에 목책을 세웠는데 오래된 부락 같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이곳에 이들이 정착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연성에 거주한 이들의 각 집마다 상자를 많이 쌓아 놓았다. 이것은 이들 외에 회령에 거주하는 여진인 300여 호도 여연성에서 살려고 미리 살림을 옮겼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조정에서 끝내 금지하겠습니까'라며 조선 조정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제멋대로 이사하여 살며 조선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다. 이는 온하위 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까지 이곳에 유입된다는 것으로, 자칫 조선에서 구축한 번호체제가 무너지는 위험성까지 있었다.<sup>16)</sup>

당시 여연성과 강 내외에 거주하는 여진인은 92호에 장정이 400여 명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인구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sup>17)</sup> 이는 조선 조정에서도 파악한 것처럼 김주성가의 족친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락을 이끌고 왔기 때문이었다. 이들 외에 건주여진인도 매년 200여 호씩 이 지역에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sup>18)</sup>

15) 『증중실록』 권36, 14년 6월 12일 갑술.

16) 조선에서 두만강 유역에 구축한 번호체제는 다음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 藩柵'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17) 당시 우의정 남곤은 1517년에 이 지역의 여진인이 30여 호였으나, 불과 2년 사이에 90여 호로 증가했다고 하였다(『증중실록』 권38, 15년 2월 13일 임신). 또한, 최세절이 만포 침사로 재직하던 시기(1517~1518)에도 여연과 무창에 거주하는 여진인은 겨우 30여 호였으나 지금은 번성하였다고 하였다(『증중실록』 권44, 17년 3월 7일 갑인).

압록강 안쪽 여연성 근처에 사는 20여 호는 김주성가의 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계속 이들이 거주하면 (1)과 같이 점차 그 세력이 불어나 변경에 위협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일단 말로 책망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면 본 거처로 돌아가는 지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sup>19)</sup>

조선의 기대와 달리 여연 등의 여진인은 이곳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이빈 등 대신들은 여연과 무창 등지에 여진인이 점점 불어나는 반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전의 삼포왜란과 같은 환란이 염려되므로 攻討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다음 달에도 병조에서 여연과 무창 등지의 여진인을 부득이 쫓아 내야한다고 하였다. 종종 역시 여기에 동의하며 당장 정부 당상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며 구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sup>21)</sup>

그러나 폐사군 등지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征討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을 구축해야 할 명분, 동원할 군사, 부족한 군량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sup>22)</sup> 이후 의정부와 병조에서 무창과 자성에 만호를 두기 청하는 등 방어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sup>23)</sup> 하지만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논의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다.

다시 조선 조정에서 여진인에 대한 구축 논의가 제기된 것은 1522년(중종 17) 3월이었다. 약 1년 간 조정에서 논의가 진행된 끝에 이듬해 9월에 구축을 결정하였다. 종종은 1524년 1월에 평안도와 함경남도의 군사를 각각 여연과 무창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때의 군사 활동은 실패하여 만포 첨사 이성언과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이 파직되었다. 새롭게 평안도 절도사에 임명된 조윤손은 동년 6월에 여연 지방을 조사하여 여전히 여진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8월 18일에도 평안도 우후 이장길은 체탐을 위해

18) 『중종실록』 권46, 17년 11월 12일 갑인.

19) 『중종실록』 권36, 14년 6월 14일 병자. 더욱이 이들은 전혀 조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자한 태도를 보여 훗날 제어하기 힘들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20) 『중종실록』 권38, 15년 1월 13일 임인.

21) 『중종실록』 권38, 15년 2월 12일 신미; 14일 계유.

22) 김순남, 2010, 앞의 논문, 64~66쪽.

23) 『중종실록』 권40, 15년 윤8월 25일 경술.

여연 등지에 갔다가 교전을 벌여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다.<sup>24)</sup>

조선군의 구축 후에도 여진인은 여연 등지에 다시 거주하였고,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에 원한을 품으며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525년(중종 20) 2월에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은 1월 26일에 건주위의 沈阿尙可 등이 兵馬를 모아 조선에서 여연·무창을 공격하면 그 뒷길을 끊으려 한다고 보고 하였다.<sup>25)</sup> 동년 10월에도 1524년의 구축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던 童他時哈의 遺種이 만포 등지를 노략질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sup>26)</sup>

동타시합은 만포 서북쪽 20~30리의 山端(혹은 僻乙外洞)에 거주하는 추장으로, 조선에서 누차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sup>27)</sup> 1524년 1월에 조선군이 구축할 때, 동타시합의 마을부터 들어갔고, 그는 조선에 순응하는 듯하다가 1월 12일에 허공교에 주둔한 조선군을 습격하였다.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동년 2월에 우후 이장길에게 파탕·古道洞, 만포 첨사 이성언에게 餘屯洞의 여진인을 구축하게 하였다. 이성언은 동타시합 등 23명을 베고, 童可可呂 등 3명을 사로잡고, 말 2필·소 4마리와 궁시를 되찾았다.<sup>28)</sup>

또한, 1533년에 평안도 절도사 송숙필이 적의 수급 3을 바치며 보낸 보고서도 “同衛의 여진인 童甫伊浩와 童皮陽古 등이 지난 갑신년(1524년)에 驅逐당한 뒤 그 아버지인 동타시합이 참살 당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가 지난해 조선인 3명을 잡아갔다.”라고 하였다.<sup>29)</sup> 이 내용을 통해 동타시합은 1524년 2월에 조선군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조선 조정은 변경의 방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축할 때 포로

24) 이때의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에 자세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였다(河內良弘, 1992, 앞의 책, 681~696쪽; 김순남, 2010, 앞의 논문, 66~83쪽; 박도식, 2014, 앞의 논문, 51~56쪽).

25) 『중종실록』 권53, 20년 2월 7일 병신.

26) 『중종실록』 권55, 20년 10월 5일 경인.

27) 『중종실록』 권49, 18년 12월 11일 정미.

28) 『중종실록』 권50, 19년 1월 27일 임진; 2월 2일 정유; 7일 임인; 20일 을묘.

29) “同衛彼人童甫伊浩童皮陽古等 去甲申年驅逐後 其父童他時哈被斬 故常時懷念 前年擄去朝鮮人三名” (『중종실록』 권74, 28년 5월 4일 병오).

30) 그런데 1525년 10월의 보고는 동타시합이 여전히 조선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로 잡아왔던 여진인을 각 고을에 분산하여 구금하고 저들이 우리 백성을 쇠환하면 그 보상으로 돌려보내는 온건책을 활용하였다.<sup>31)</sup> 이러한 결과 1525년 윤12월에 온하위의 童束時 등이 건주위에서 만포 등지의 각 진보를 노략질 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여러 여진인이 만포에 와서 적의 入寇 계획을 알려 왔다. 물론 조정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sup>32)</sup>

결국 우려대로 1528년(중종 23) 1월에 만포 첨사 심사손이 차가대 연대의 강 건너 금둔동에서 빨감을 벌채하던 중 기마 100여 명의 습격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때 침입을 자행한 자는 李如弄介 등으로, 1525년 2월에 조선으로부터 살해당한 동타시합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조선 조정은 대응 과정에서 다시 정토를 계획했으나 증신과 대간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sup>33)</sup>

이처럼 온하위를 비롯한 여진인은 조선에서 사군을 폐지한 뒤 비어있는 틈을 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조선은 사군을 폐지했지만 이곳은 본래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므로, 이들의 퇴거를 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의 명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였다. 결국, 조선에서 1525년에 여연과 무창 등의 여진인을 구축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오히려 이때의 구축은 조선의 무능함을 노출하며 폐사군 지역에 대한 이들의 이주를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Ⅲ. 온하위의 거주 지역 확대

조선이 폐사군의 온하위를 구축한 것은 말 그대로 쫓아내는 정도에 불과하여 조선군이 돌아가면 다시 들어와 점점 퍼져나갔다. 구축 직후인 1525

31) 『중종실록』 권56, 21년 1월 12일 을미.

32) 『중종실록』 권56, 20년 윤12월 22일 병자; 21년 1월 21일 갑진.

33) 심사손의 조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河內良弘, 1992, 앞의 책, 692~696쪽; 김순남, 2010, 앞의 논문, 79~83쪽).

년(중종 19) 6월에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은 “구축한 뒤에 野人이 여연 등에 다시 들어와 밭 갈고 집을 지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 대해 영의정 남곤 등은 저들이 우리의 兵威를 두려워하지 않고 깔보는 마음을 가져서라고 분석하였다.<sup>34)</sup> 이들은 조선의 군사력이 위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축 직후부터 거주지로 돌아 온 것이다.

더욱이 1525년 8월 19일, 여연 지역에 간 조선의 척후병 5명이 적 30여기와 만나 접전하였다.<sup>35)</sup> 이 역시 구축 직후 여진인이 이 지역에 되돌아와 거주한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1525년의 구축은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중종도 심사손이 살해당한 직후에 여연과 무창을 구축할 때 진과 방어할 곳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후회할 정도였다.<sup>36)</sup> 하지만 중종의 우려와 별개로 다 음과 같이 무창 등지에 여전히 여진인이 날로 번성하고 있었다.

(2) 茂昌에 와서 사는 저들의 무리가 날로 번성하여 구축하면 뒤이어 다시 돌아오니 점점 퍼질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농사짓고 우리 山川에서 고기 잡고 사냥하면서 안팎으로 서로 원조하며 우리를 침범하려 도모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오랑캐들이 이를 본받아 잇달아 일어나서 더욱 능멸하는 짓을 부리게 하면, 변방 백성들의 근심을 장차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sup>37)</sup>

(2)를 통해서 여연뿐만 아니라 무창에 사는 여진인은 점점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1524년의 구축과 같이 군사적 행동을 펼친 뒤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무창 등지의 여진인은 단지 폐사군 일대에 거주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을 침범하려는 기미를 보였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 주변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 역시 이대로 폐사군 일대를 방치할 수 없었기에 앞서 본 것처럼 재

34) 『중종실록』 권51, 19년 6월 25일 무오.

35) 『중종실록』 권51, 19년 8월 26일 무오.

36) 『중종실록』 권60, 23년 2월 2일 갑진.

37) 『중종실록』 권61, 23년 4월 28일 기사.

구축을 논의하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대신 폐사군 지역의 체탐을 강화하여 이들과 접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sup>38)</sup> 그러나 조선은 근본적으로 여진인의 거주를 막을 수 없었고, 이들은 조선에서 체탐하는 길목에 망보는 幕을 설치하여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따라서 조운손은 이들이 오만하여 마음을 고치지 않고,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다니며 경작과 漁獵한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sup>39)</sup>

시간이 지날수록 여진인은 점차 폐사군 일대뿐만 아니라 만포와 가까운 山端(丹)까지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535년 4월에 평안도 관찰사는 童所時哈 등이 만포진 근처에서 집 짓고, 농사지며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의정부와 병조는 여연과 무창의 일이 잘못된 뒤로 동소시합 등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조정은 이들을 내쫓으면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여 일단 만포로 불러 궤향하고, 잘 타일러 돌아가게 하자고 하였다.<sup>40)</sup>

동소시합 등은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신료들은 여연과 무창이 조종조부터 우리 강토인데, 적의 소굴로 버려두어 국토가 점점 줄어들고, 뒷날 화근이 될 것이라며 警邊使를 파견하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자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산단의 여진인 정도도 논의하였다.<sup>41)</sup> 영의정 김근사 등은 만약을 대비해 경변사 심언광에게 저들의 가구 수와 나중에 건너온 자의 수효 및 시기 등도 파악하게 하였다.<sup>42)</sup> 이러한 상황은 조선에서 폐사군 지역을 방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변사로 현지에 파견된 심언광은 산단의 여진인을 토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536년(중종 31) 2월에 서장을 올려 童平古 등이 만포에서 가

38) 『중종실록』 권63, 23년 10월 19일 정사; 권66, 24년 8월 18일 신사; 9월 5일 정유.

39) 『중종실록』 권63, 23년 10월 19일 정사.

40) 『중종실록』 권79, 30년 4월 11일 신축; 20일 경술; 권80, 8월 10일 무술.

41) 『중종실록』 권80, 30년 11월 16일 계유; 21일 무인; 12월 21일 정미.

42) 『중종실록』 권80, 30년 12월 28일 갑인.

까운 林投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 곳에 사는 무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심언광은 동평고 등을 제어하기 위해 만포 침사가 불러 數罪하고, 그 무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효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3)</sup> 또한, 심언광은 여연과 우예, 무창에 따로 군사를 보내 중간에서 저들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4)</sup>

심언광의 강경한 태도는 산단과 임투 등지의 동소시합과 동평고 등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평고는 조선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동소시합도 20여 명을 이끌고 귀화하였다.<sup>45)</sup> 이처럼 조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약 1년간 끌어온 만포 주변에 거주한 동소시합 등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진인은 여전히 여연과 무창 심지어 혜산과 가까운 지역까지 들어와 거주하였다. 예를 들어, 1538년 4월에 평안도 절도사는 무창 등처까지 함부로 와서 농사 지으며 사는 여진인의 수효가 전보다 배가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sup>46)</sup> 1538년에 함경남도 절도사가 여연과 혜산 등지에 거주하는 부락이 번성하여 우리와 연합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조정은 그 가장에게 죄목을 따져 벌주어 국가의 위엄을 보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들을 달래거나 군사를 보내 상태를 살피는 정도에 머물렀다.<sup>47)</sup> 이듬해 조정은 여연과 무창에 와서 사는 여진인이 증가한 반면, 우리는 그들의 부락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면 우려하였다.<sup>48)</sup>

조선이 여연·무창 등 폐사군에 거주하는 온하위인의 거주를 막지 못하자 건주위인의 이주도 본격화되었다. 앞서 1522년에도 건주위인의 폐사군 진출 소식이 있었고, 童多方可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압록강 건너편 林投에 와서 초막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만포 등 조선의 제진과 가깝기 때문에 평안도 절도사 김순고는 동다방가 등에게 본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

43) 『중종실록』 권81, 31년 1월 6일 임술; 2월 29일 갑인.

44) 『중종실록』 권81, 31년 4월 1일 을유; 4월 24일 무신.

45) 『중종실록』 권81, 31년 4월 2일 병술; 24일 무신; 26일 경술.

46) 『중종실록』 권87, 33년 4월 19일 임술.

47) 『중종실록』 권90, 34년 3월 5일 계유; 4월 29일 병인; 권91, 8월 30일 갑오.

48) 『중종실록』 권94, 35년 10월 11일 기사.

다. 하지만 그는 ‘전부터 살고 있는 자들부터 먼저 토벌하여 쫓아낸다면 나도 퇴거하겠다’고 대답하며 거절하였다. 약 25년 뒤의 언급이기는 하지만, “여연과 무창은 우리 땅인데도 능히 금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임토는 저들의 땅이니 어떻게 먼저 금하겠습니까. 만약 정토를 시행한다면 여연과 무창부터 먼저 시작해야 마땅합니다.”<sup>49)</sup>라고 대답한 중신들의 인식은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실 조선이 압록강 안쪽에 거주하는 여진인도 몰아내지 못하면서 강 바깥에 와서 사는 등다방가 등을 쫓아내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따라서 김순고는 무창과 조명천(간)에 둘 중 한 곳은 반드시 쳐야 하는데, 강 바깥에 거주하던 童尙時가 1515년(중종 10)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먼저 제거하자고 주장하였다.<sup>50)</sup>

후임인 평안도 절도사 우맹선도 온하위와 건주위의 세력이 확장되는 현실을 언급한 뒤, 동상시의 토벌을 주장하였다. 우맹선은 1523년의 구축 이후에도 여연과 무창 등지에 사는 자가 불어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들이 만포, 강계와 가까운 임투, 지령괴 등지의 건너편에 거주하며 방자하게 강을 건너 조선의 영토에서 고기잡이 하고, 삼을 캐며 사냥한다는 것이다.<sup>51)</sup>

1544년 4월에 특진관 우맹선은 “삼수에서 여연·무창까지 와서 사는 야인이 4~5천이나 되었고, 삭주에서 만포의 근처까지 와서 사는 야인들이 또한 3~4천을 밀돌지 않았습니다.”라며 변방을 방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물론 압록강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숫자는 차치하더라도 우맹선 등은 이들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49) 『명종실록』 권5, 2년 2월 9일 신묘.

50) 『중종실록』 권96, 36년 7월 5일 기축; 14일 무술.

51) 『중종실록』 권97, 36년 12월 24일 을해; 28일 기묘. 한편,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동상시를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중종실록』 권97, 37년 1월 15일 병신; 20일 신축; 24일 을사; 3월 3일 계미).

52) “而自三水至闔延茂昌之間 野人之來居者 至於四五千. 自朔州至滿浦近處 來居野人 亦不下三四千人”(『중종실록』 권102, 39년 4월 16일 갑신).

이처럼 조선에서 폐사군 일대의 여진인을 몰아내면 다시 이들이 거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 방식을 통해 최소한 압록강 안쪽에 거주하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조정의 의도와 달리 종종 말년에 이르면 폐사군 지역뿐만 아니라 만포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온하위와 건주위인이 거주하며 세력권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양자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 IV. 조선과 온하위의 충돌

명종대에도 입토 등지에 여진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이들의 세력은 여전하였다.三公은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때를 보아야 하기에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sup>53)</sup> 하지만 1548년(명종 3) 6월 13일에 여진인이 만포진을 공격하여 守護廳에 불을 지르고 長城門의 자물쇠를 뽑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군은 즉각 추격하여 3명을 만나 그 중 1명을 참획하였다.<sup>54)</sup> 만포진은 건주여진 및 온화위 등 압록강 유역의 여진인과 교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폐사군 혹은 압록강 바깥에서 조선군과 접전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공격의 범위가 확장된 점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만포를 공격했다는 것은 조선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만포진을 침입한 주체에 대해서 ‘賊胡’라고만 표기하여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후 조선의 대응 과정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평안도 절도사 양윤의는 동년 8월 9일에 상토진의 군관 안적 등을 장수로 삼아 폐사군 일대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상토진으로부터 2식의 거리인 上峯浦, 時番坪 등지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자들을 발견하여 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sup>55)</sup>

53) 『명종실록』 권5, 2년 2월 5일 정해; 9일 신묘.

54) 『명종실록』 권8, 3년 6월 22일 을축.

상봉포는 자성군으로 강계와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시변평은 현재의 자성강을 가리키므로,<sup>56)</sup> 자성강 주변에 비교적 넓은 평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 현재의 자성시 일대 혹은 자성강 하구의 수몰지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이 만포진을 습격당한 뒤 취했던 군사 조치의 방면이 폐사군 일대였다는 점은 당시의 침입 주체가 만포에서 가까운 임토 부락 등에 거주했던 온하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때의 군사행동을 통해 명종대 초반에도 여전히 폐사군 일대에 여진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안도 절도사 등에게 만포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임토, 파탕동 일대의 여진인을 원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1550년(명종 5) 8월에 梨坡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여진인이 家畝를 철거하여 본토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조정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평안도 관찰사와 절도사의 개유에 따랐기 때문으로, 병력도 동원하지 않았다. 명종은 크게 기뻐하며 평안도 관찰사와 절도사의 공을 치하하며 1자급씩 가자하였다.<sup>57)</sup>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사 방호의 등이 자신들의 공을 과장하였고, 실상 파탕동 등의 여진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벌을 주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사헌부가 방호의 등에게 무리한 상을 줬다고 반발한 것을 시작으로, 金多弄哥 등 52호가 옮겨 간 곳은 자신들의 본 거주지가 아니라 무창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이들이 무창 등으로 이주하여 더욱 단속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적이 물러났다고 한 立巖 등 4屯에 여전히 여진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짓 보고한 자들을 모두 잡아와 추국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sup>58)</sup>

조정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李權에게 직접 四屯에 가서 여진

55) 『명종실록』 권8, 3년 9월 2일 갑술.

56) 이인영, 1948, 앞의 책.

57) 『명종실록』 권10, 5년 8월 16일 정축; 17일 무인.

58) 『명종실록』 권11, 6년 3월 9일 정유; 22일 경술; 23일 신해; 권12, 12월 1일 갑인; 권13, 7년 2월 12일 갑자; 권14, 8년 6월 2일 정축.

인의 거주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관은 저들이 철수하고 돌아가서 들판에 쭉대가 덮혀 있다고 보고하며, 방호의의 보고가 사실로 인정받았다.<sup>59)</sup> 이후 방호의 등의 처벌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 여진인은 조선에서 바라 볼 때 보이는 곳만 철수했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자가 많았다. 즉, 4둔 중 가장 북쪽이었던 서해평에 여진인이 여전히 거주한 것이다.<sup>60)</sup>

1564년(명종 19) 5월에 이르러 더 이상 조선은 서해평의 여진인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평안도 절도사 이택은 “서해평 등처에 胡人이 집을 짓고 농사 지으니 禁斷하기 바랍니다.”라고 치계한 것이다. 명종은 이 일을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며 올해는 일단 두고, 이듬해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sup>61)</sup> 1565년 8월에 평안도 절도사 김덕룡은 서해평의 체탐을 위해 300명을 3위로 나누어 들여보냈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 거의 100명이 사망하는 패전을 당하였다. 심지어 김덕룡은 이 패전을 감추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후에 적발되었다.<sup>62)</sup>

『石潭日記』와 같은 후일의 기록에 이때의 전투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을축년(1565년)에 평안도 절도사 김덕룡이 우후 봉흔 등을 파견하여 胡人の 유무를 엿보아 기회를 타서 쫓아 잡도록 하였다. 하지만 호인들이 미리 깃새를 눈치 채고 허공교에서 기다리다 돌을 던지고 북을 치자, 아군이 놀라 흩어져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 김덕룡은 이 죄로 파면되고, 조정에선 그 치욕을 씻으려고 김수문을 절도사로 삼았다고 한다.<sup>63)</sup>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봉흔이 패배 당한 곳은 서해평이 아니라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허공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9) 『명종실록』 권16, 9년 1월 27일 무진.

60) 『명종실록』 권23, 12년 9월 18일 무진.

61) 『명종실록』 권30, 19년 5월 5일 병오.

62) 『명종실록』 권31, 20년 9월 5일 무술; 6일 기해; 11월 9일 임인.

63) “金德龍爲節度使 遣虞侯秦昕等 入胡人有無 使之乘機逐捕. 胡人預覺之 要於虛空橋下 投石鼓譟 我國驚散 顛損國威. 德龍坐罷 朝廷欲報其耻 以金秀文爲節度使”(『石潭日記』 卷上, 隆慶二年 戊辰). 『선조수정실록』 권6, 5년 8월 1일 갑인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石潭日記』에 우후 봉흔 등이 패한 곳을 허공교라고 기재한 것이 차이점이다.

조선 조정은 이때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하여 1566년 1월부터 서해평의 정토를 검토하였다. 이후 조정은 서해평이 압록강 안쪽에 위치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반드시 저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만일 저들을 참획하지 못하더라도 농작물을 짓밟고, 가옥을 분탕하여 청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여러 형편상 그 이듬해 여름에 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sup>65)</sup> 명종의 붕어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선조 즉위 이후에도 서해평 여진인의 구축은 현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68년(선조 1) 5월에 평안도 절도사 김수문이 서해평 胡人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보복의 차원에서 상토 등을 공격하였다.<sup>66)</sup> 특히, 김수문은 서해평을 공격할 때, 사면으로 에워싸고 합공하려 하였다. 그러나 衛將 장필무가 포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적의 장정들을 도망치게 하며 약간의 차질도 있었다. 조선군은 촌락을 불태우고 노인과 어린이, 여자들을 죽였다. 선조는 이를 승리로 인정하고, 김수문에게 상과 正憲大夫의 품계를 내렸다.<sup>67)</sup>

그러나 서해평 등지의 여진인은 다시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 1572년에 이 사실을 인지한 조선 조정은 故事에 따라 절도사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습격하여 곡식을 베고, 그들의 집을 불질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평안도 절도사 이대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서해평 여진인의 곡식을 베러 들어갔지만 적에게 습격을 당하여 크게 패하였다. 당시 패전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 …… 우후 李鵬과 함께 가서 곡식을 베고 돌아오던 중, 아군 한 명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 크게 놀라 고함을 지르자 전군이 놀라 동요하였다. 胡兵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모두 무기를 버리고 어지러이 달아났다. (이)병이 앞길에 있다가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돌아와 후군을 점검하고 있을 때, 後衛將 江界府使 李善源이 말이 쓰러져 땅에 떨어지니, 아군이 더욱 놀라 거의 대패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호병이 사실은 單弱

64) 『명종실록』 권32, 21년 1월 1일 계사; 7일 기해; 11일 계묘.

65) 『명종실록』 권33, 21년 11월 8일 갑자.

66) 『선조수정실록』 권2, 1년 5월 1일 경술; 『선조실록』 권2, 1년 5월 20일 기사; 23일 임신.

67) 『선조수정실록』 권2, 1년 5월 1일 경술.

하여 10여 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군사들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이에 아군이 호인을 쏘아 쫓아버렸는데, (이)붕이 本衛에 당도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이)붕이 병사를 거두어 진을 치고 露宿하게 하자 (이)선원은 겁먹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며 기필코 밤중에 행군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투자 전군이 누구의 명을 따라야 할지 몰라 크게 소란이 일어났다. (이)붕이 (이)선원을 참수하려 하니, 그때서야 (이)선원이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여 그 이튿날 회군하였다. 조정이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세 사람들을 잡아다 국문하고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별로 모두 削奪官爵하여 병사로 강등시켰다. 이 당시 軍令이 해이해져 상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 전군을 몰아 작은 적을 치러 갔으면서도 군사들의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게 되어 일개 胡인이 쏜 화살 하나에 三軍이 놀라 패하였으니,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sup>68)</sup>

(3)에서 보이듯이 조선군은 서해평에서 곡식을 베고 돌아오는 길에 적 한 명이 쏜 화살에 전군이 동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진을 치고 노숙하는 문제로 지휘관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등 군기 해이 문제까지 노출되었다. 1573년 2월에 강섬은 무위를 잃었다며 서해평 정토 의견을 냈으나, 유희춘이 반박하였다. 동년 7월에도 선조는 중추부에 2품 이상을 모아 서해평의 정토가 온당한지 의논하게 하였다.<sup>69)</sup>

평안도의 변장들은 계속해서 서해평에서 곡식을 베는 일로 군사 활동을 하였다. 1574년 7월에도 평안도 절도사 소흙이 서해평의 곡식을 베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였다. 하지만 북병장 백광언이 적과 만나 조선군의 기동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군사를 파하고 돌아왔다.<sup>70)</sup> 이후 1585년에도 추파 만호 김인수가 적로를 체탐할 때, 적 20여 명을 습격하여 수급 5개를 취하고,

68) 『선조수정실록』 권6, 5년 8월 1일 갑인. 이와 동일한 내용이 『石潭日記』 卷上, 隆慶二年 戊辰에도 기록되어 있다.

69) 『선조실록』 권7, 6년 2월 5일 병진; 7월 10일 무자.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도 군사 2,3명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활로 胡人을 쏘아 죽이며 용감히 맞서 싸운 군사가 있었다. 유희춘 등은 경연에서 이들에게는 포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又成龍論及關西西海坪伐穀事. 伐穀後回還時 彼人七八名追逐 中衛將李鵬等 驚惶奔走 棄馬及器械 賴有軍士二三人上高丘 射殺胡人 遂得小解 此不可不賞. 『眉巖集』 卷16, 『經筵日記』 壬申年, 12月 16日).

70) 『선조실록』 권8, 7년 8월 7일 무신.

패주시킨 적이 있었다.<sup>71)</sup> 이러한 점을 보면 조선의 변장들은 꾸준히 폐사군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온하위가 조선을 공격한 또 다른 방향은 삼수, 갑산, 혜산 등 함경남도 서북부 지역이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1572년(선조 5) 여름에 적병 수십 명이 雲籠城 밖에 와서 농민과 소, 말 등을 빼앗아 갔다. 1574년 가을에도 적병 50여 기가 혜산과 兩郊를 지나 운총의 남쪽으로 향하였다. 이때 운총보의 갑사인 김희조가 활약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sup>72)</sup> 당시 이들과 조선군의 전투 양상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바로 김희조가 활약한 내용을 명기한 『秋齋集』의 김장군전이다. 이 자료는 아직 대여진 연구에서 다룬 적이 없는 사료라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김장군의 이름은 希祖이고, 字는 而賢이다. 甲山人이고, 扶餘(김)씨이다. …(중략)…장군은 隆慶 癸丑년(1553년)에 태어났는데,<sup>73)</sup> 얼굴은 총명하게 생기고 목소리는 큰 종과 같았다. 부모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자랄수록 아이는 더욱 외모가 흰칠하였다. 날마다 말을 달리고 검을 연습하였다. ①壬申년(1572년) 여름에 오랑캐가 (갑산)읍의 경계를 노략하자 사람들이 모두 새와 짐승처럼 숨었다. 이때 장군은 20세였는데, 혼자 적진에 돌입하여 오랑캐 둘을 베자 이들이 모두 失聲하여 도망쳤다. 마침내 (김장군이) 우리의 피로인 및 약탈해간 기물과 양식, 소와 말을 가지고 왔다. ②萬曆 갑술년(1574년) 가을에 오랑캐가 또 압록강을 건너 진보를 약탈하였다. 이때 兵虞候가 있었지만 감히 나가지 못 하였다. 장군이 즉시 또 혼자 말을 달려 馬山坂 중턱에 이르러 크게 소리 지르며 적진에 들어갔다. 적이 장군의 용맹을 알아 人馬가 모두 피하고, 오랑캐 추장이 놀라 땅에 엎드렸다. 장군은 추장의 말과 차고 있는 칼을 빼앗아 좌우로 돌입하여 수 십명의 적을 베자, 적이 狼走하여 도망쳐 ③惠山 桴是川에 웅거하였다. 장군은 곧 말에 재갈을 물리고 가서 뒤를 쫓아서 그 屯宿하는 곳을 표시하고, 밤을 타서 돌입하였다. 또

71) 『선조실록』 권19, 18년 9월 13일 경진.

72) 『여지도서』 함경도, 갑산부 인물; 『북관지』 함경도, 갑산부 인물.

73) 김희조의 출생년인 1553년은 가정 32년으로, 용경이라는 표현은 오류이다.

(김장군이) 수십 명의 적을 베자 남은 적은 크게 놀라 밤에 도망쳤다. 장군이 그 生口와 資糧을 뺏어서 돌아왔다. 이 때문에 오랑캐가 더욱 장군을 두려워 하였다. 후에 ④병자년(1576년), 경진년(1580년), 무자년(1588년)에 오랑캐가 수차례 쳐들어왔지만, 장군은 여러 차례 이를 깨트렸다. 전후로 수 십번을 싸워 장군이 참살한 것이 수 백, 수 천이었다. 하지만 장군은 화살에 몇 대 맞았을 뿐이었다. 賊虜는 또 북면을 약탈하였지만, 그때마다 장군은 홀로 검을 휘두르며 내달려 왕래하며 마침내 北虜를 내쫓았다. 때문에 갑주와 동서의 여러 邑鎭은 모두 장군 덕에 편안해졌다.<sup>74)</sup>

이 글의 작성자는 조수삼이고, 작성 시기는 1797년(정조 21) 혹은 1821년(순조 21)일 가능성이 크다.<sup>75)</sup> 위의 내용은 선조대 갑산 지역에서 여진인과 전투에서 활약한 김희조와 김언 부자에 관한 것이다. 그 중 (4)에서는 온하위의 전투와 관련된 내용만 인용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4)는 김장군 즉, 김희조의 가계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가 여진인과 전투에서 활약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김장군 혼자 수 십번을 싸워 수 백, 수 천명을 참살했고, 그 때문에 북방이 편안해졌다는 영웅담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므로 자칫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서사를 지탱하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①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572년 여름에 적병 수십 명이 운총보 밖에서 노략한 내용과 동일하다. ②의 내용 역시 1574년 가을에도 적병 50여 기가 운총보의 남쪽 일대를 침범한 내용과 부합한다. 특히, ①과

74) 金將軍名希祖 字而賢 甲山人而扶餘氏也. …(중략)… 將軍以隆慶癸丑生. 而貌嶷聲如巨鍾. 父母異之 成童益魁梧. 日馳馬試劍. 歲壬申夏 有虜掠邑境 人皆鳥獸竄. 時將軍年二十 獨馳入賊中斬二虜 虜皆失聲走. 遂擧我人被俘者及所掠器糧牛馬而還. 萬曆甲戌秋 虜又渡鴨綠江掠鎭堡. 時兵虞候在而不敢出. 將軍即又獨馳 至馬山坂 大呼入賊中. 賊知將軍勇 人馬辟易 虜酋驚仆地. 將軍奪其所騎馬及其佩刀 左右突斬數十賊 賊狼狽走 據惠山吾是川. 將軍乃銜馬行而尾之 識其屯宿處 迺夜突入. 又斬數十賊 餘賊大恐夜遁去. 將軍奪其生口資糧而還. 由是虜益畏將軍. 後丙子及庚辰及戊子 虜數入 將軍數破之. 前後數十戰 將軍所斬殺爲數百千. 而將軍被數箭而已. 賊虜又掠北邊 時將軍獨奮劍馳 往來而逐北虜. 故甲州東西諸邑鎭 皆依將軍而晏然. …(중략)… 聖上卽阡之二十一年夏 漢陽趙秀三撰并書(趙秀三, 『秋齋集』 卷8, 金將軍傳).

75) 聖上卽阡之二十一年夏 漢陽趙秀三撰并書(趙秀三, 『秋齋集』 卷8, 金將軍傳). 여기에서 연도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그가 1762년(영조 38) 생으로 1797년과 1821년 모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수삼이 1821년에 관북지역을 다녀온 이듬해 지은 『북행백절』을 참고하면 김장군전을 1821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신장섭, 2004, 「秋齋 趙秀三의 「北行百絶」 연구」, 『인문과 학연구』 12, 121쪽).

②는 『여지도서』의 관련 시기 및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sup>76)</sup>

③의 적이 패주하여 도망치다가 둔을 쳤다고 하는 혜산의 품은川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등 각종 지도에 품은川, 吳氏川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었다. 그리고 모두 오시천을 현재의 검산리에서 압록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운총보가 있던 현재의 운총리에서 침입자들이 퇴각한다면 압록강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먼저, 운총리에서 산당을 지나 제당령을 넘어 혜산시로 가는 길이다. 둘째, 운총리에서 동쪽으로 노중리, 장포동으로 가서 검산동의 오시천으로 빠지는 길이다. 따라서 오시천에 둔을 쳤다는 내용 역시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④1576년, 1580년, 1588년에 “오랑캐가 수차례 쳐들어왔다”는 기록은 다른 자료에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587년(선조 20) 8월에 賊胡 100여 기가 운룡(鎭)보 근처까지 들어와 백성과 가축을 약탈하였다. 동년 9월에도 적 1,000여 기가 혜산진을 포위하였는데, 첩사 이하와 병사들이 역전하여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1588년 2월에 적이 또 다시 혜산 지경을 침입하여 조선은 큰 피해를 당하였다. 혜산 첩사 이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접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군관 및 군인들도 많이 살상 당하였다.<sup>77)</sup> 따라서 김장군전에 기재된 1588년의 침입은 1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룡총 일대를 공격한 사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sup>78)</sup>

또한, 『북관지』 갑산부 인물조에 기재된 김희조의 내용을 보면, 운총보의 갑사로 용경만력 연간에 여진인이 몰래 강 건너 쳐들어왔을 때 많은 적을 참살하여 적들이 두려워했고, 그 때문에 김희조를 김장군이라 칭했다고 한다. 즉, 김장군전과 『여지도서』 및 『북관지』의 김희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사가 일치하고,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576년과

76) 『여지도서』 함경도, 갑산부 인물; 『북관지』 함경도, 갑산부 인물.

77) 『선조실록』 권21, 20년 8월 26일 계미; 9월 24일 경술; 권22, 21년 2월 16일 기사.

78) 오히려 다른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1576년과 1580년 즈음에도 여진인의 침입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80년에도 저들의 침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1587년에 해산 침사가 적에게 살해당한 것은 조선의 국위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였다. 따라서 함경남도 절도사 신립은 즉각 보복을 단행하였다. 즉, 1588년 5월 20일에 古未浦의 賊胡部落을 정토한 것이다. 이때 각 衛에서 20명과 말 3필을 참획하고, 부녀자의 생포 및 그들의 부락도 분탕하였다.<sup>79)</sup> 이를 통해 최소한 1587년과 1588년에 해산과 갑산의 운룡보 일대를 공격한 것은 무창 건너편의 고미포(峯)에 거주한 세력, 즉 온하위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온하위가 안정화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거주지를 점차 폐사군지역뿐만 아니라 만포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확장하였다. 반면 조선은 이들의 거주를 막기 위해 체탐군을 보내거나 그들의 거주지를 공격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온하위인은 폐사군 일대에서 조선군과 접전하였다. 오히려 명종선조대에 이르면 이들은 폐사군을 벗어나 만포와 강계, 함경도의 삼수, 갑산, 해산 등지를 공격하며 공세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제 온하위는 더 이상 조선에서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필연적으로 조선은 기존과 다르게 이들을 대해야 했고, 조선의 대여진 과제 가운데 새로운 하나로 대두되었다.<sup>80)</sup>

## V. 맺음말

온하위는 성종 중반기에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이주한 뒤, 성장한 세력이다. 처음에는 작은 부락에서 시작했지만, 조선과 건주여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 뒤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 마침 조선에서 폐사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 기회를 이용한 온하위인은 점차 폐사

79) 『선조실록』 권22, 21년 윤6월 2일 계미; 7월 1일 임자.

80)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박정민, 2018,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 거주지의 검토」, 『역사와현실』 109).

군 지역으로 거주지를 확장하였다.

조선 조정은 1517년에야 김주성개 등의 거주 사실을 인지하였다. 대신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김주성개 등이 거주한 곳은 압록강 건너편이므로 일단 허락하지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김주성개 등의 거주를 허가하자 오히려 이들은 폐사군 지역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물론 조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변장들은 순찰 등을 통해 武威를 보이는 한편, 폐사군 일대의 여진인 거주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폐사군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였다. 1519년에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여연성 내외에 약 400명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까지 이곳에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구축한 번호체제가 무너질 위험성까지 내포하였기에 조정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선 조정의 기대와 달리 여진인이 이주하지 않자, 1520년에 조정은 폐사군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구축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명분의 부족, 군사와 식량의 부족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구축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1522년부터 자신들의 거주지에 돌아가지 않는 여진인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결국 조선군은 1525년에 여연과 무창의 여진인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단행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1528년에 만포 첨사 심사손이 강 건너편에서 여진인에게 살해당하는 등 위상이 하락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조선군은 폐사군 지역을 순찰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인은 여연과 무창, 혜산뿐만 아니라 만포와 가까운 지역까지 와서 거주하였다. 조선 조정은 압록강 안쪽에 거주하는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세력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명종과 선조대에도 온하위인은 계속해서 폐사군 지역에 거주하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만포와 가까운 서해평에 거주하는 이들의 구축이 선결과제였

다. 1565년에 평안도 절도사 김덕룡은 이곳의 체탐을 위해 군사를 보냈다가 패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때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서해평정토를 검토하였다. 물론 여러 상황으로 제대로 보복하지 못하였지만 조선 조정이 서해평을 압록강 안쪽에 위치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반드시 저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인식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1568년에 김수문이 서해평을 공격하여 약간의 武威를 보였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여진인이 들어와 살았다. 이후 조선에서 군사를 일으켜 구축하고, 체탐을 통해 이들의 거주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상태로 현상이 유지되었다.

한편, 온하위는 세력이 성장하면서 압록강 중상류 방면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가까이 삼수, 갑산, 혜산 지역을 약탈하였다. 조선군은 이들의 침입을 여러 차례 막아냈지만, 혜산 침사 이하 등이 사망할 정도로 피해를 당한 적도 있었다. 특히 이하가 사망한 것은 조선의 국위와 관련된 문제였다. 함경남도 절도사 신립은 1588년에 고미포를 공격하여 승전을 거두었다. 신립이 이곳을 공격한 사실은 당시 혜산 등을 침입한 세력이 고미포에 거주하는 온하위 세력이고, 당시 온하위의 세력이 무창 건너편 고미포 일대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온하위는 폐사군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 물론 조선은 압록강 안쪽의 영토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체탐하거나 군대를 보내 이들을 내쫓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공방전으로 조선과 온하위는 점차 서로에 대한 반감이 쌓여갔다. 명종선조대에 이르면 이들은 폐사군을 벗어나 만포와 강계, 함경도의 삼수, 갑산, 혜산 등지를 공격하며 침략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더 이상 이들은 조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다. 이제 조선에서는 온하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

『조선왕조실록』, 『여지도서』, 『북관지』, 『石潭日記』, 『眉巖集』, 『秋齋集』

### 2. 저서 및 논문

- 李仁榮, 1937, 「鮮初廢四郡地理考」上, 『靑丘學叢』 29  
李仁榮, 1939, 「鮮初廢四郡地理考」下, 『靑丘學叢』 30  
李仁榮, 1941, 「廢四郡問題管見」, 『震檀學報』 13  
신장섭, 2004, 「秋齋 趙秀三의 「北行百絶」 연구」, 『인문과학연구』 12  
김순남, 2010, 「조선 중증대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 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강석화, 2012, 「成海應의 西北 邊界 意識」, 『진단학보』 115  
박도식, 2014, 「어촌 심언광의 북방 경험과 국방 개선안」, 『한일관계사연구』 56  
이규철, 2016, 「藥泉 南九萬의 北邊 上疏와 廢四郡·厚州鎭 설치 논의」, 『한국인물사연구』 26  
장정수, 2016,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신충일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  
박정민, 2016, 「조선 중기 武將 최호의 북방 활동」 『백산학보』 105  
\_\_\_\_\_, 2017,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성종~연산군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홍순영, 2018,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의 編史활동과 한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85  
박정민, 2018,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 거주지의 검토」, 『역사와현실』 109  
瀨野馬熊, 1923, 「朝鮮廢四郡考」上, 『東洋學報』 13-1  
\_\_\_\_\_, 1923, 「朝鮮廢四郡考」中, 『東洋學報』 13-3  
\_\_\_\_\_, 1924, 「朝鮮廢四郡考」下, 『東洋學報』 13-4  
河內良弘, 1992, 「中宗·明宗時代の朝鮮と女眞」, 『明代女眞史の研究』

■ Abstract ■

## Growing Power of Wenhewei and Joseon

Park, Jung min (Jeonbuk Institute)

Wenhewei increased its clout after migrating to the midstream region of the Aprokgang Ri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s a small village, a stable relationship with Joseon and Jianzhou Jurchen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two forces, gradually. As Joseon's control over the Four Abolished Counties weakened, Wenhewei had an opportunity to expand its residence to this region.

Joseon territory inside the Aprokgang River boundary sent military forces to ward off Wenhewei. Joseon and Wenhewei. By the time of King Myeongjong and King Seonjo, Wenhewei beyond the territory of the Four Abolished Counties, invaded into areas including Manpo, Ganggye, as well as Samsu, Gapsan, and Hyesan in Hamgyeongdo Province. Urgent Joseon government to change its policy on Wenhewei, collect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m and manage them accordingly.

Key words: Wenhewei, Joseon, King Yonsan, King Myeongjong, King Jungjong, Aprokgang River, Four Abolished Counties, Jianzhou Jurchen